

# 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



NH농협손해보험(대표이사 최창수)은 지난 1월, 암 전조증상에서 당뇨 합병증까지 보장을 강화한 무배당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을 출시했다.

이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일반심사는 물론 간편심사 제도를 도입해 고령층과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.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을 선택하면 같은 보장을 최대 30%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다.

이 상품에 일반심사로 가입하는 고객은 암, 뇌혈관질환,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 진단비와 입원 일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. 특히 암의 전조증상까지도 보장한다. 위, 십이지장, 대장에서 양성종양 및 폴립(용종)이 발견되면 진단비를 보장하고, 간, 갑상샘, 남녀생식기 등의 양성종양 및 폴립(용종)은 수술비를 지원한다.

당뇨 관련 담보도 강화했다. 당화혈색소 수치가 6.5% 이상으로 당뇨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실명, 족부 절단 등 각종 당뇨합병증까지도 보장한다. 치매 등 노인

성 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 진단비는 물론 백내장·녹내장, 관절염, 골다공증, 화상 및 골절 등 수술비 담보도 세분화해 고객 혜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.

유병자가 간편 심사로 가입할 경우 3가지 항목만 고지하면 암, 뇌혈관질환, 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병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. 암, 뇌졸중, 급성 심근경색증의 경우는 수술비도 보장한다. 3가지 고지항목은 ▲ 3개월 내 입원·수술 등에 대한 의사소견 여부 ▲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▲ 5년 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여부 등이다.

무배당 New간편한가성비플러스건강보험은 80세, 90세, 100세 만기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, 납입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으로 구성됐다. 전국의 농·축협과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대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. ①